

우공(牛公)



조 명 래
경기도수의사회 고문
수의학 박사
musso6985@hanmail.net

I 삼복 중 찜통과 가마솥 무더위 때는 끈지락거려도 온몸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다. 한염(旱炎)의 대낮에 심부름을 가면, 금방 정수리가 벗겨질듯 따가운 햇볕에 땅(길)에서 내뿜는 지열이 휩싸 덮치면 금새 얼굴은 화끈 달아올라 땀범벅이 되고, 후텁지근한 열기에 숨차 험쩍거릴 수밖에 없다.

소는 의외로 무더위와 강추위에 약하다. 오죽하면 ‘더위 먹은 소, 달만보아도 험쩍인다’는 속담이 생겨났겠는가? 그래서 소에겐 보다 한가롭다는 여름철 동안에도 반드시 한낮과 낮결을 피해서 풀을 뜯겼다. 매미와 쓰르라미 소리가 요란한 낮에는 그들이 넓게 지는 바깥마당의 감나무나 산기슭의 참나무에 고삐를 매어두고 계목(繫牧)하거나 폭 쉼계 놔두곤 했었다.

열대야로 푹푹 찌는 한여름 밤,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수많은 별들과, 물과 구름처럼 빛이 흰히 흘러나오는 은하수 속의 여기저기서 별뿔별의 지상으로 내리쬐듯한 신비로운 불꽃놀이에 빠져든다. 이따금 은은히 들려오는 다들이 소리와 소쩍새의 구슬픈 소리조차 냇물 위 물수제비 뜨듯 저 멀리 사라질 때쯤, 널평상 위 선잠에서 깨어 칭얼대는 손자에게 할머니는 재빨리 부채질하면서, 다독이는 손장단에 맞춰 자장가를 구성진 가락으로 불러 달래면, 이내 스크르 잠이 들었다. 저기 소의 건너편에 왕겨와 약썩으로 피워둔 모깃불에서 희뿌연 연기가 평상을 스쳐 지날 때마다, 언뜻언뜻 드러나는 소의 모습은 믿음직스럽기 그지없고, 쉬지 않는 새김질의 질경질경 되짚는 소리는 소를 살찌우는 또 하나의 자장가와 진배없었다.

1950~1960년대 초등·중학생의 일부는 으레 여름방학때면 소를 돌보는 목동(牧童)이, 겨울방학 동안에는 갖가지 땀감을 찾아 구하는 초동(樵童)이 되어야 했다. 소가 더위 타거나 먹지 않도록 하루에 두 번 즉, 아침나절과 늦은 오후쯤에 대개 늪지대나 강가에서 풀을 뜯겼다. 소를 탈 때는 둘이 함께 타거나, 뒤돌아 앉아 타거나, 서서 타보거나, 심지어 서커스를 하듯 물구나무서기란묘기도 부려본다. 각자 고삐를 물고 풀이 무성한 곳에서 양 허구리가 차오를 때까지 양껏 배불리 뜯킨다음, 고삐를 목사리에 감아 걸쳐서 방축(放畜)해두기 일쑤였다.

자, 이제는 우리들의 세상이다. 다같이 우르르 몰려 먹을 감거나, 닭쌈 또는 말뚝박기란 놀이에 빠지거나, 낫을 던져 표점(標點)에 가장 가깝고 똑바로 꼽힌 선수가 꼴찌가 태워 둔풀만큼 따먹는 게임도 벌였다. 또한 특별히 소의 목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모두가 동참한 가운데, 함께 짚북데기를 뭉쳐서 문지르고 검정 고무신으로 물을 퍼부어 말끔히 씻기곤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풀이 뜨지 않도록 망태기의 꼴을 곧바로 풀어헤쳐 두었고, 말뚝에 매어둔 소를 세밀히 관찰한 후 별판에서 문어온 쇠파리, 등에, 진드기 등을 반드시 잡아주어야 했다.

소의 여름철 사양은 흔히풀 뜯기기와 생풀 급여 그리고 작두로 썬 털 말린 꼴과 짚에 보릿겨를 타고 뜨물을 부어 만든 여물을 먹였지만, 겨울철과 봄·가을의 농번기에는 반드시 쇠죽을 끓여 먹였다. 쇠죽가마에 여물(짚과 건초), 보릿겨와 등겨(쌀겨), 콩깍지, 비지, 지계미(재갈), 호박, 무, 시래기 등을 넣은 다음, 뜨물과 개숫물을 붓고 푹 삶아 끓였다가

잠시 나무주걱으로 한번 뒤집어 섞어주는 센스가 있어야만 은연중에 구수한 쇠죽을 만들 수 있다. 역시 소에게 가장 바쁜 농사철이란 봄의 파종기와 가을 수확기인 농번기다. 이때는 각별히 신경 써 쇠죽에 잔반(殘飯), 보리쌀, 콩, 강냉이, 수수, 조 등의 영양가가 있는 곡류를 덧붙이기 마련이다.

우경(牛耕)에서 제일중요한 작업은 농경의 밑바탕인 논밭을 갈아엎는 쟁기질과 흙바닥을 고르는 씨레질, 그리고 고랑과 이랑을 나누는 골타기와 이랑의 북을 돌우는 일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운반하는 작업으로, 소의 등에 길마를 지워서 소바리하거나, 거기에 걸채를 덧댄어 벗단, 보릿단, 모층, 곡류 등을 시태질한 다음 한 바리씩 운반하거나, 소의 목덜미에 멍에를 걸고 땀치를 깐 등쪽에다가 밀치부터 꼬리에 걸어 길마를 덧댄 다음, 달구지와 잘 맞춰 연결하고 배 앞쪽의 멍장쇠를 죄어 채우면 소달구지로 운반할 수 있다.

그런데 소를 몰고 두렁길로 가거나 밭작물 한가운데서 부릴 때는 근처의 작물을 뜯어먹지 못하게 언제나 주둥이에 부리망을 씌워다녔다. 또한 길이없거나 농로가너무 좁아 우차의 내왕이 곤란한 전답에는 지게가 정말로 유용하기 그지없었다. 큰 농기구에 속하는 탈곡기, 풍구, 쟁기(호리와 겨리), 씨레 등도 지게에 얹고 지게꼬리로 동여매면 쉽게 저다 나를 수 있었고, 지게에다 바소쿠리를 달면 꼴과 팥감은 물론 이따금 수확한 소량의 농작물도 짐바리로 실어 나를 수 있었다.

대체로 외양간은 사랑채에 위치하며, 입구에 도둑맞지 않게 서까래로 빗장을 지르고, 구유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 기둥에다 고삐를 묶을 수 있도록 참바와 고리를 매달아 놓았다. 아주 조금 경사진 바닥 끝에는 오줌독과 다름없는 쇠지랑탕이 있었고, 동절기의 바닥엔 북데기와 텃검불 등의 것을 충분히 깔아서 소의 아랫배가 차지 않도록 보호했고, 젖은 깔짚과 깃은 나중에 모두 걷어내 퇴비로 쓰고, 검불은 쇠지랑물은 거름으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소의 등허리에 벧짚과 새끼를 꼬고 엮어 만든 거적 또는 멍석과 다름없는 덕석(우의)을 입혀 추위를 막았다. 또한 강추위가 엄습할 때는 덕석 밑에다 담요나 보온덮개 같은 언치를 추가로 들썩워 주었다. 사시사철 만약 소가 가려워 등을 핥거나, 발굽으로 배를 긁거나, 기둥이나 벽에다 등과 방둥이를 마구 비비는

비계질을 보이면, 마주나무에 매어놓고 등덮개를 벗겨서 전신을 쪼 문치와 글정리로 싹싹 문지르고 싹싹 긁어준 다음, 대비 또는 싸리비로 온몸을 말끔히 빗겨서 마무리하고, 덤으로 일광욕까지 끝내면 비로소 등덮개를 입혔다.

II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소를 우리 집의 대들보요 권구(眷口)라고 하셨다. 말하자면 한집에서 같이 살아가는 가족으로서다 함께 돌보아주어야 할 식구라는 것이다. 그것은 농가의 재산 중 현금으로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동산이며, 소가 없으면 식구의 인력으로만 농사일을 감당하기엔 엄두조차 못 내었던 세태에 숨겨진 이유도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한 가족처럼 소에게 쏟았던 온정성이 대대로 잘 계승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위에 언급한 지난날 농우(農牛)의 생활상과 사양관리에 다음과 같은 당시의 실정(實情)을 덧붙인다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권구”란 대우(待遇)에 적이납득이 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소의 상태를 살피고 쇠죽을 정성껏 챙겨, 사람보다 항상 일찍 아침을 먹여 온 오랜 관습을 아직도 철칙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소를 부리거나 몰 때에도 채찍질 대신 ‘당기고, 휘두르고, 두드리느’고 뼈의 장단(長短) 조절에 따라 ‘이러, 이러, 저러, 찌찌, 어디여, 우어우어, 우아우아, 쫓쫓, 찌찌’의 소리를 병행함으로써 호흡을 척척 맞춰 왔다.

장날 소달구지에 농산물을 한가득 싣고 멀고 먼 성내(城內)라도 가는 날이면, 발굽을 보호하기 위해 쇠쇠신을 신기고, 달구지에 똥받이를 달아 환경미화에 신경을 쓰며, 내리막일 때는 달구지를 타지만 오르막길에는 미리 내려밀어 주면서 같이 걸어가는 배려의 센스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또한 만약 논밭을 경작하는 도중에 소가 힘들어 혀를 빼며 헐떡거리면, 일단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푹 쉬면서 물과 풀을 충분히 섭취케 했다.

겨울의 티닐을 뚫고 입춘이 오면 자녀들의 학자금(등록금)을 마련키 위해, 동부레기 또는 목매기 송아지를 판 돈으로는 모자라 어미소도 낫취 개비(改備)해야만 했다. 물론 어상을 불러 흥정을 붙여 팔 수도 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새벽에 쇠전(쇠장)으로 손수 끌어가곤 했다. 그러면 소품평회나 축산경연대회에 출전하듯이, 며칠 전부터 소의 몸을 긁어 빗기고 방둥이도 굵고 뉘어야 하며, 새로

매끈하게 엮어 짠 굴레를 씌워서 쇠코뚜레와 목줄에 연결시킴으로써, 두상(頭相)을 훨씬 낫게 만들어 가치를 한층 더 높였어야만 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딸랑딸랑 방울(편경)소리로 농우의 존재를 알려주는 워낭만큼은 떼어놓고 갔다는 사실이다. 마침내 먼 길의 시골벽적한 우시장에 도착하자, 쇠살주의 끈질긴 가격 흥정에 지쳐 심신은 더욱 노곤하지만, 막상 소를 넘길 때는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붉히고 정을 떼기가 못내 아쉬워 끝내 눈시울을 적시는 뒷모습에서, 농우야말로 우리의 확실한 권구로서 분명히 우공(牛公)으로 자리매김하고도 남았다.

Ⅲ 소를 사육 용도별로 분류하면 대개 젖소(유우), 고기소(육우), 일소(역우)로 나누지만, 두 가지 용도 이상의 겸용종도 약간 있다. 우리나라 젖소에는 홀스타인이 유일한 품종이고, 고기소에는 한우, 홀스타인, 한우고잡종이 대부분이지만, 쇼트혼, 헤리퍼드, 앵거스, 샤롤레, 시멘탈, 산타게르투디스 등도 있고, 일소에는 한우가 유일하지만 한우고잡종도 드물게 나타난다.

여기서 한우(韓牛)란 '한국의 소'라는 뜻에서 소의 품종으로 등록되어 버렸는데, 조선시대 용비어천가(1445)에 기록된 큰소·황소의 뜻인 「한쇼」와 함께 훈몽자회(1527)에 적혀 있는 「한쇼 : 망우(鱗牛)」와 「어릉쇼 : 화우(花牛)」라는 이름은 아예 한우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지 모르겠다. 예전에는 한우라 부르지 않고 누구나 그냥 황소(수소) 또는 암소라고만 불려왔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누런빛을 띤 소라는 뜻의 황우(黃牛)가 혹시 한우로 변천하였거나, '한쇼'의 한자표기는 거우(巨牛)나 대우(大牛)임에도, 앞뒤 생각 없이 급한 마음에 '한'을 '한(韓)'자로 대충 바꿔 그냥 한우(韓牛)로 불렀지 않았나 추측해 보기도 했다. 아직도 분명히 우리의 소로 불렸던 한쇼, 어릉쇼, 조선쇼(조선우), 황우, 철소, 길치(남도), 청(靑)치, 흑(黑)소(제주)등이 여전히 남아있음도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한우의 사육현황(축협중앙회)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인 1940년에도 174만두가 넘었던 한우가, 태평양전쟁을 위한 일제의 공출과 수탈의 자행으로 해방된 해 1945년에 상상을 초월한 59만여두로 급감하였으며, 민족의 상잔으로 얼룩진 6·25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사상 최저로 기록을 세운 39만여두로 떨어졌다가, 드디어 1960년 100만두의 선에 다시 진입한 다음 1984년엔 200만두의 선을 훨씬

넘어 231만여두로 올라섰고, 이후 소와 송아지의 가격파동, 사료값 파동, 쇠고기의 수입, 광우병, 구제역과 브루셀라병 등의 경제·사회적인 문제와 이슈에 따라 사육두수의 신축(伸縮)이 크게 반복되곤 했는데, 금년의 한우의 수는 266만두가 조금 넘는다.

원래 한우는 역우(役牛)인 농우로서 수천 년 전부터 농자들과 더불어 농경사회를 굳건히 지켜 왔다. 그러나 동력경운기(1962), 농업용 트랙터(1968), 이앙기, 바인더, 소형 트랙터(1977), 콤팩트(1982)의 등장 이래, 인간이 자동화 기계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듯, 하루가 멀다고 일터를 농기계에게 빼앗긴 농우는 서서히 명예퇴직의 뒀안길로 물러나게 되었다. 또한 한우의 번식 방법도 이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자연교미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인공수정에 의존하지만, 수정란 이식과 체세포 복제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우에서는 한우고잡종과 또 다른 품종의 송아지가 태어날 수 있고, 한우 외의 품종에서도 한우고잡종과 한우의 송아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기에, 한우, 특히 농우의 위상은 말이 아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농사(農事)·농업(農業)·농부(農夫)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의 소 농우(農牛), 아니 우공(牛公)의 참모습은 이제 겨우 산간 오지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약해졌다. 이런 현실이 슬프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의 한우는 일소(역우)의 자리에서 퇴출되어 고기소(육우)로 전락하였다.

어느덧 부리망을 쓴 채로 워낭 소리를 내며 논밭 여기저기에서 소바리, 쟁기질, 씨레질을 열심히 끌면서 숨차하는 우리들 우공의 늠름한 모습이 자꾸만 그리워지고, 쇠달구지 위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서 타고 가는 모습도 더욱 정겹게 보이고, 또한 겨울철 외양간에서 숨쉴 때마다 하얗게 두 줄기로 내뿜는 우공의 콧감까지도 실컷 맡아 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저 하루빨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룩하여 우리의 일소요 농우인 우공을 북한에서 새롭게 다시 만나기를 기원해 본다. ♡